

書 評

GRUNDLAGEN EINER PHENOMAEENOLOGIE UND PSYCHOLOGIE DER PERSPEKTIVITAET

C. F. GRAUMANN 著

Walter de Gruyter & Co. Berlin, 1960

曹 大 京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多様多相한 빛나가는 對話(Aneinander-vorbei-Reden)라는 現象을 우리는 日常生活에서 體驗한다.

그리하여 同一한 學問分野에서 同一한 節次로 얻어진 結果에 對해서까지도 相異한 解釋을 내리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우리는 너무나도 흔히 이 原因을 言語의 未備나 不正確性에 돌린다.

著者は 이 現象을 究明하기 爲하여 "Phenomenology is the field in which all concepts find their final justification" 이라는 Wolfgang Köhler의 確信을 이어 받아, 現象學의 研究方法에 依한 知覺에 있어서의 眺望性(Perspektivität)의 分析 記述, 證明을 企圖했다.

이 分野에 對한 現象學的인 心理學의 展開는 Leipzig 및 Berlin 學派가 強調한 우리의 體驗의 全體性, Lewin 等에 依하여 開拓된 狀態性, Sander 및 Rüssel 等에 依해 研究된 意味性(Sinnhaftigkeit) 및 記述的 接近方法으로 動機를 分析한 Thomae 等에 依하여 이루어졌는데, 著者は 이들의 理論을 擴大하고 綜合하여, 우리의 知覺에 있어서의 視點, 觀點, 具象의 으로 주어진 것의 樣相性(Aspektivität des anschaulich Gegebenen) 및 視界等과 같은 構造部分과 함께, 視覺的 知覺의 視界構造를 分析하고, 이 "不變"의 構造로서의 視界性(Horizonthaftigkeit)

이 視覺的 知覺은 아니라 가장 抽象的인 面까지도 包含한 認知的 行動에 決定的 影響을 준다는 事實을 基本論題로 삼았다.

著者は 記述的인 個別分析과 認知的 行動에 關한 實驗 結果들을 基盤으로 하여, 視覺的 眺望性 및 態度와 衝動 等에 影響을 받는 認識의 現象과 社會的 知覺間的 關係를 考察했다.

특히 이 領域에서 根本概念이 되는 "意味"와 "動機"에 關한 現象學的인 究明은 操作的 方法에 依한 事實들의 斷片性 乃至 相互矛盾性에 뜻을 附與하여 眺望性에 關한 綜合的 理論으로의 展開를 可能케 했다.

心理學의 發達史에서 얼마 前까지만 해도 心理學의 唯一한 研究對象같이 되어 있던 知覺分野가 (心理=意識=知覺), 無意識의 "出現", 行動의 原因에 對한 關心의 集中, 行動의 科學으로의 過激한 變遷等으로 因하여 心理學에서의 그 王座를 빼앗긴 것 같은 오늘날, 著書의 內容은 心理學徒에게 操作的 方法과 現象學의 方法의 綜合的 應用을 통한 複雜多樣한 知覺現象들——方法의 未備와 急激한 發達에 依하여 뒤에 미루어졌던——의 研究可能性을 示威함과 同時에, 人間과 世界의 相互關係에서 知覺이 차지하는 根本性을 再闡明하여 주기도 한다.